

도, 올 첫 민생경제 원탁회의 개최

전북경제 대표하는 기관·단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소상공인 지원 등 기관별 주요 시책·협조사항 공유

전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원탁회의는 경제분야를 대표하는 도내 50개 주요 경제기관·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각 기관의 시책설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민생경제 원탁회의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30여개 경제관련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2023년 하반기 주요 시책 설명 및 협조 요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여름 휴가철 축제·피서지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캠프, 고흥스리랑기 부채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환경



전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민생경제 부흥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태단지 운영방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등 총 30개 시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 센터 구축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며 각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강조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민생경제 부흥과 기업하기 좋은 전북

도 육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탁회의 기관과 단체 모두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대한건설회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이 쌀 600포를 전달했다.

행복동행 쌀 600포, 소외이웃 전달

대한건철 전북도회 회장 "소외 이웃에 희망 줄 수 있게 최선을"

대한건철회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7월 5일 소재철 회장 취임식에서 기부받은 쌀을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27일 전주교구 전주교구청을 방문해 희망을 키우는 행복동행 쌀 600포(1500민원)를 전달했다.

소재철 회장은 "허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 호우피해까지 겹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계가 지속적인 관심과 시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욱기 기자

농진청, 과수 '햇볕 데임' 예방관리 당부

미세살수 장치·햇빛 가림망·탄산칼슘 희석제 등 활용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당부간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수 농가에서는 집중호우 뒤 고온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햇볕 데임(일소)' 피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햇볕 데임은 열매가 커가는 시기(과실 비대기)에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열매 표면이 마치 데인 듯하거나 잎이 갈색으로 마르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고온 장애이다. 일반적으로 봉지를 씌우지 않는 사과, 단감에서 주

로 발생한다. 증상 초기에는 열매 표면이 흰색이나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지만 심해지면 해당 부위가 썩고 탄저병 등 2차 병에 감염 우려가 커진다.

미세살수 장치와 햇빛 가림망 등을 설치한 농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햇볕 데임 피해를 예방한다. 미세살수 장치는 대기 온도가 31도(°C)일 때 가동하고 자동조절 장치로 30분 동안 물을 뿌린 뒤 5분간 멈추도록 설정한다. 햇볕 데임 피해는 과수에 수분이 부



사과햇볕데임 후기 증상

족했을 때 발생하기 쉬워 고온기에는 과수원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공급한다. 또한 나뭇가지를 잘라

당겨 잎이 열매를 가리도록 유도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부위를 줄여야 한다. 탄산칼슘을 열매에 뿌려 햇볕 데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는 200배액으로 희석하여 햇볕에 노출된 열매 위주로 뿌려준다.

햇볕 데임 증상이 심각한 열매는 빨리 수확해야 병해가 다른 열매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나무 자판재가 안정되도록 열매숙기 작업을 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봄철 저온과 우박, 여름철 집중호우로 예년보다 열매가 적게 달린 상황이므로 남아 있는 열매가 수확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온 대응과 병해충 방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농협, 수해 피해복구에 역량 집중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4일 이어 27일 익산 용안면 시설하우스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피해복구 활동에는 농협전북본부 내 임직원과 전북농협시가지협의회 계열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우로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내부 농작물 제거 및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전북본부,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임인), 백구농협(조합장 장승환) 임직원 29명은 김제시 백구면 오이 재



배 시설하우스에서 농작물 제거 및 비닐 제거활동을 펼쳐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했다. /김욱기 기자

전기안전공사와 건강한 여름나기... '썸머 페스타' 개최

8일부터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어린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물놀이 축제가 전북혁신도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에서 '썸머페스타(Summer Festa)' 행사를 개최한다. 워터슬라이드와 에어 바운스, 분수터

널 등 갖가지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며, 수박 빨리 먹기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도 펼쳐진다.

축제와 함께 뜻깊은 여러 부대행사도 열린다. 지구촌 환경 보호와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아동권리 지켜주기' 캠페인이 그 중 하나다.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을 일त्र 수량 모아오

면 리워드 캐시(보상금)를 지급해 위기가정 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에 함께 나눌 예정이다.

물놀이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아(오전 10시~오후 12시)와 유아(오후 12시~오후 3시), 아동(오후 3시~오후 6시) 등 연령대별로 이용시간을 나눴다. 안전요원이 상주하며 입장 요금은 무료다. /김욱기 기자



전기안전공사 썸머페스타 포스터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군산시와 협업해 고장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새로운 전선 휴즈함을 개발하고 도서 지역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도서 지역에서 정전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한전 군산지사·(주)에이퍼워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고군산군도의 명도 주민 4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 시범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선 휴즈 교체 시 전선주 오



뚜껑이 개방된 신 개발 전선 휴즈함

름에 따른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욱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